추석 가정 예배

인도자(가정의 가장 혹은 신앙의 세대주)

묵상기도 ..... **인 도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1:2)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 송 .....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 **가족중에서**

성경말씀 ..... **사도행전 10:1~8** ..... **다 같 이**

말씀선포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가정"** ..... **설 교 자**

(설교 원고는 뒷면에)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 **다 같 이**

2022년 9월 10일

추석 가정 예배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준비

1. 예배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 앉습니다.
음식은 차리지 않습니다.
2. 예배순서에 따라서 가족 중 신앙의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3. 예배순서 중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하면 좋습니다.
4. 예배 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WAIC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소망교회 NEW HOPE COMMUNITY CHURCH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는 교회

[설교말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가정(사도행전10:1-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가정입니다. 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가정일까요? 사실 가정은 하나님 창조 세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라든가 부부간의 대화, 형제간의 대화는 현대인의 가정에서 사실상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사이버 문화 앞에 인간 그 자체를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리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단순히 잠자고 지나가는 여인숙, 하숙생의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의 품에 안겨 죽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식민지인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에 파견한 군대의 막강한 권세를 가진 고급장교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고넬료 가정을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그가 경건하여"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그의 경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 고급장교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경건할 필요도 없고 경건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다고 맨 처음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척만 한다는 거지요. 딤전4: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게 나실인의 삶이고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1) 고넬료의 경건이 가정으로 연결됩니다.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이 얼마나 경건하였기에 7절을 보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인들과 부하까지도 경건했습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도 경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혼자 잘 믿은 것이 아니라, 부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경건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의 경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내, 자녀, 할아버니 할머니의 경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개인적으로 경건했고 가정적으로 경건했습니다. 가족이나 부하들 하인들까지 경건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가정, 가정의 경건, 여기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흔들리는 근본 이유는 가정이 경건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경건은 기도였습니다.

본문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도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곧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면 그분에게 보고하고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기도로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지 실재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쫓아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3) 경건은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로마군대의 장교였습니다만 식민지 땅의 불쌍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4절에 보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또한 그 구제를 하나님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제를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27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이 구제의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회가 너무 이기적인 것을 한탄합니다. 모두들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급히 찾아야 할 우리 가정의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우리 가정의 병을 치료해주고, 우리 가정을 튼튼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수도한 대로 먹고, 형통하게 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평생에 반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것이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십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경건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온 집안으로 더불어 행하는 경건한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랑과 교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만들 때 경건한 가정이 우리를 경건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가정에 은총을 더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이런 경건한 가정을 세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하시고 복 주시는 명문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배 후 가족이 모두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